

ISSN 2672-2013

2021.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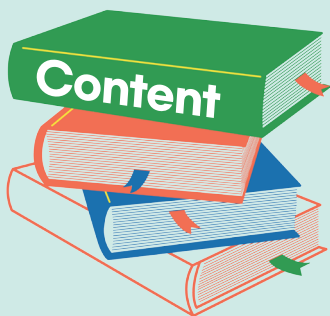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포커스

The Community of Economics and Culture
DEOHAM FOCUS

Vol.3

No.1



— 읽을거리 [그곳에, 말을 걸다]

06 광주 원효사와 오지호 <아미타후불탱화(阿彌陀後佛幀畵)>_ 김허경

— 더함 포커스_ 정책칼럼

12 “광주형” 그 의미를 찾아서- “광주형의 출발점 및 발전(변천)과정_ 정대근

18 내가 생각하는 광주형 문화란?_ 박경동

26 ‘광주형’ 문화예술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제언- ‘광주형’ 미술이란 무엇인가_ 김허경

34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_ 김수환

40 광주형 산업발전 방향_ 안수창

46 ‘경제 민주화’로서 광주형_ 윤영선

54 광주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단상_ 이철승

2021. 03. Vol.3 No.1



① “광주형” 그 의미를 찾아서- “광주형”의 출발점 및 발전(변천)과정_ 정대근

“광주형”에 대한 분야별 개념 정립에 앞서 “광주형”이라는 용어 사용의 출발점 및 발전(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광주형”의 시작이 12대 윤장현 시장의“광주형 일자리”였다면 그 확장은 광주형 일자리의 현실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노사상생형 일자리”이며, “광주형”의 현재는 이용섭 시장이 말하는 “광주형 3대 뉴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속에 숨에 있는 “광주형”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광주형”이란 무엇인가?

② 내가 생각하는 광주형 문화란?_ 박경동

‘광주형 문화’는 지역민의 삶을 반영해야 하고,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지향하며, 더 나은 가치를 위해 자신의 신분, 소속,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는 활동들이다. 사적취미를 넘어 예술을 기반으로 소통하고,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예술을 통한 유대감 속에서 자신과 지역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는 것. 이것이 광주형 문화정책의 궁극적 목표이다.

③ ‘광주형’ 문화예술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제언_ 김허경

예향남도에 자리한 광주는 오랫동안 축적해온 지역의 역사성, 전통성, 지역 공동체의 삶을 매개로 문화예술의 지평을 넓혀왔다. 광주는 2002년 ‘문화수도’ 육성을 시작으로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의 구심점이자 문화예술 메카를 지향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2014년부터는 ‘광주형 일자리’라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광주형’ 모델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정책에서 ‘광주형’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광주형’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으로 ‘광주형’ 근현대미술자료관 설립,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형’ 브랜드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안해 본다.

④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_ 김수환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하여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고자 함.

⑤ 광주형 산업발전 방향_ 안수창

지역의 주력산업들은 이제 광주의 주요한 산업버팀목이 되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제 신규 유망 산업으로 지목되는 자율형전기차, 신재생에너지, AI 산업들과 함께 성장하고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재들의 활발한 생태계 진입이 필요하고 보호해줄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⑥ '경제 민주화'로서 광주형_ 윤영선

광주형은 공동체, 민주화로 상징되는 광주 정신을 의미한다. 광주 정신으로서 광주형은 '광주형 일자리' 그리고 '경제 민주화'에서 가장 드러난다. 미시적 관점인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 공동체 차원의 사회적 합의제도를, 거시적 관점인 경제 민주화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대안으로서 자유시장경제에 사회국가 원리가 반영된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광주형은 이 두 가지 개념이 추구하는 것으로 '지역 차원의 경제 공동체', '사회국가 원리'로 볼 수 있다.

⑦ 광주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단상_ 이철승

'경제적 가치 증대를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업가정신의 확산'을 통해 기업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사회문화적 문제 해결 과정에 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경제공동체의 구현이 '광주'와 '기업'이라는 다소 이질적으로 보이는 두 단어의 접점을 찾기 위해 끼워야 할 첫 단추일 것이다. 경제적 가치 창출과 사회적 가치에의 투자활동이 별개의 영역이 아님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기업가정신의 확산이야말로 광주형 경제공동체의 단단한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더함 경제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더함 포커스』는
시민활동가 샘치과 손정수원장님의 사랑하는 배우자였던
(故)장은주님을 추모하는 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광주 원효사와 오지호
〈아미타후불탱화(阿彌陀後佛幀畫)〉

김허경(Kim Heo Kyung)

전남대학교 기초교육원/강의교수
nowandher@hanmail.net



오지호, 〈아미타후불탱화〉 1954

광주 도심에서 무등산을 향하여 옛길 위를 걷다 보면 1구간이 끝나는 지점이자 동시에 2구간이 시작되는 장소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바로 천년고찰 원효사(元曉寺)의 초입에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무등산 중턱에 자리한 원효사(元曉寺)는 『원효암중건기(元曉庵重建記)』(1847)와 『원효암중수상량문(元曉庵重修上樑文)』(1894)에 창건내용이 남아 있을 만큼 다른 사찰과 달리 정확한 문헌 기록을 가진 산사(山寺)이다. 사찰의 명칭은 원효대사가 6세기 초중반 무렵, 무등산 북쪽 산자수려(山紫水麗)한 암자에 머물면서 불리게 되었다. 원효사에 관한 상세한 기록은 육당 최남선의 『심춘순례(尋春巡禮)』(1926)에서도 확인된다. 최남

선은 1925년 50여 일에 걸쳐 지리산을 중심으로 각지를 순례하고 기행문을 집필했는데 원효사를 두고 “법당(法堂)과 범절(凡節)이 당당한 사찰의 풍모를 갖추었다. 본존인 석가여래상이 거룩하시고 사자의 등에 지운 대법고(大法鼓)는 다른 데서는 못 보던 것이다 (….) 불상도 불만하니 그래도 원효의 창사 이래 오랫동안 명찰(名刹)이던 자취가 남아 있다”라고 전경을 묘사한 바 있다.



무등산 원효암, 1930년대,
출처: 사진으로 본 광주 100년



한국전쟁 때 불타버린 원효사의 옛 모습은 동강 정운면
(1906~1948)이 그린 실경산수화에 남아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전쟁기를 거치면서 수백 년을 일구었던 가람(伽藍)은 화염에 휩싸여 전소되고 만다.

1954년 주지 인곡(麟谷)스님과 신도들은 곧바로 불사중건에 착수하였고 한국사찰의 전례에 따라 대웅전에 불상과 그 후면에 불교의 신앙 대상을 그린 탕화를 봉안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이때 법당 뒷면 벽에는 서양화가 오지호 화백이 그린 〈아미타후불탱화〉가 걸리게 된다. 오지호는 불화(佛畵)의 유형인 탕화를 어떻게 그릴 수 있었을까. 〈아미타후불탱화〉는 오지호가 한국전쟁기의 공백을 깨고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와 관련되어 있다. 오지호는 한국전쟁 중 ‘전남지구 총사령부’ 출판부원으로 입산 활동을 하다 군경토벌대에게 검거되어 옥고를 치렀으나 가까스로 지역민의 탄원과 처가의 구명으로 풀려난다.

6.25의 비극은 오지호를 죽음으로 내몰았을 뿐 아니라 척박한 시대의 상처를 남겼으며 평생 벗지 못한 멍에를 짊어지게 하였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원효사 중창 불사에 지역 신도들이 십시일반 힘을 보냈는데, 가장 대표적인 분이 지응현(池應鉉)씨와 그의 부인이다. 그리고 지응현 씨의 사위가 바로 오지호 화백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오지호의 장모인 김계(金桂)는 오래전부터 원효사에 다니던 독실한 불자였으며 원효사 중창 불사 때 사위인 오지호에게 탕화를 그려 달라고 청한 것이다.

〈아미타후불탱화〉는 2002년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 첫 불교 근현대미술전인 《아름다움과 깨달음-한국 근현대미술에 나타난 불교사상》에 불교미술로서 처음 대중에게 공개되어 대중에게 주목을 받았다.

현재 원효사의 본사인 송광사 정보박물관에 이관되어 수장고에 보관 중인 〈아미타후불탱화〉는 세로 143.4cm, 가로 191.8cm에 달하는 대작이다. 탕화는 중앙의 연꽃 대좌 위에 아미타불을 앉히고, 그 좌우에 육대 보살과 여섯 제자를 배치한 불교회화의 전형적인 형식을 갖추어 ‘12 보살상’이라 불리었으나 불상(佛像)을 모신 상단(上壇) 뒤에 걸어 두었기 때문에 ‘후불탱화(後佛幀畵)’라 부른다. ‘후불탱화’는 우주의 진리, 깨달음의 경지, 부처의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만다라’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오지호는 명주 베 바탕에 식물성 특수 안료와 아교를 배합한 물감을 사용하여 치밀한 구도와 오방색의 채색 감각을 더 해 불교미술의 강렬함을 표현했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편단우견(偏袒右肩)의 자세, 가느다란 눈썹과 엄정한 표정, 결가부좌(結跏趺坐)한 모습은 명암법을 사용하지 않아 평면적임에도 불구하고 능숙한 필선으로 인해 석굴암 본존불이 연상될 만큼 생생하다.

오지호는 유화를 다룬 화가지만 1930년대부터 한국 고유의 색채를 탐구했기 때문에 불교회화의 강렬한 색조와 단순미를 드러낼 수 있었다. 오지호가 〈아미타후불탱화〉를 제작할 즈음 그린 〈가을〉(1953), 〈초동〉(1954)에 파란 하늘, 붉은색의 산, 노란색의 단풍, 간간이 보이는 흰색의 지붕, 초록색의 채소밭 등에서 윤곽선으로 형태를 표현하거나 오방색의 색채를 간결하게 구사하는 변화를 보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원효사와의 인연은 이듬해 그의 아들인 오승우에게 이어졌다. 오승우는 1955년 외할머니 권유로 〈신중탱화(神衆幀畵)〉와 〈칠성탱화(七星幀畵)〉를 그려 봉안하였다. 탕화는 사찰의 전각이나 불상의 종류에 따라 그림을 달리 걸게 되는데, 크게 본존의 〈후불탱화〉와 〈신중탱화〉로 나누어진다. 오지호가 그린 후불탱화가 본존불의 신앙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라면 〈신중탱화〉는 수호신적인 기능을 띤다. 여기서 〈신중탱화〉의 경우 칠성신을 신중의 하나로 보고 신중탱화 속에서만 묘사하였으나 조선 초기 칠성에 대한 신앙적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신중탱화에서 분화된 별개의 칠성탱화를 그리게 된다.



오승우, 〈칠성탱화〉, 1955, 송광사 성보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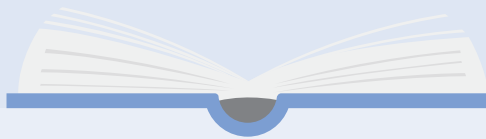
오승우의 〈칠성탱화〉는 전통오방색의 범주를 유지하지만, 중앙의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인물들을 자유롭게 배치하여 구도의 변화뿐 아니라 신광(身光)과 보살들의 두광, 머리의 화관을 각기 다른 색으로 채색하여 화면의 짜임새를 보였다.

오지호 가(家)에 의해 제작된 탕화는 불교의 교리를 쉽게 표현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불교를 장엄(莊嚴)하기 위한 종교미술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에게겐 모든 중생이 괴로움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염원했던 예술가의 불심과 시대적 갈등과 상처를 딛고 일어난 예술의지를 전달한다.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포커스

정책칼럼



1. “광주형” 그 의미를 찾아서-
“광주형”의 출발점 및 발전(변천)과정_ 정대근
2. 내가 생각하는 광주형 문화란?_ 박경동
3. “광주형” 문화예술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제언-
‘광주형’ 미술이란 무엇인가_ 김허경
4.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_ 김수환
5. 광주형 산업발전 방향_ 안수창
6. ‘경제민주화’로서 광주형_ 윤영선
7. 광주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단상_ 이철승

01

“광주형” 그 의미를 찾아서... - “광주형”의 출발점 및 발전(변천) 과정

정대근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문헌정보학 박사)

키워드: 광주형 발전, 광주형 변천, 광주형 일자리, 상생형 일자리, 광주형 뉴딜

1. “광주형” 그 의미를 찾아서...

– “광주형”의 출발점 및 발전(변천) 과정

“광주형”에 대한 분야별 개념 정립에 앞서 “광주형”이라는 용어 사용의 출발점 및 발전(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광주형”의 시작이 12대 윤장현 시장의 “광주형 일자리”였다면 그 확장된 광주형 일자리의 현실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사상생형 일자리”이며, “광주형”의 현재는 이용섭 시장이 말하는 “광주형 3대 뉴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속에 숨에 있는 “광주형”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광주형”이란 무엇인가?

최근 많은 지역에서 정책사업에 각 지역의 이름을 붙여 “○○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용어는 광주광역시에서 “광주형”이란 이름 붙이는 것에서 시작되어 여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시발점인 광주에서조차 “광주형”이라는 용어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볼 때 지금이 바로 “광주형”이라는 용어를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 우리가 말하는 “광주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하고 공감대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적절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형”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된 것은 “광주형 일자리”라는 용어가 그 시작이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광역시가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안한 사업으로, 기존 완성차업체가 지불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절반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후생 비용 지원을 통해 보존한다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광주를 위한 약속

- 번영하는 광주**
 - 사회협약을 통한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
 - 100대 영웅강소기업 및 미래형 빅데이터산업 육성
 - 신영신강시대 광주 · 전남 상생발전 추진
- 따뜻한 광주**
 - 저준급 있는 노인 시민참여형 일자리 1만개 창출
 - 윤장현 공동체 마을 주택 프로젝트 추진
 - 순환복지체계와 위경관 · 장애인 행복도시 구현
- 꿈꾸는 광주**
 - 아시아문화전당 연계 융합문화산업 육성
 - 맛고을 문화단지 조성 등 글로벌 관광산업 육성
 - 미래인재육성과 청년공간정책 특성화 교육도시 구현

※ 출처: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시장선거
기호 2번 윤장현 책자형 선거공보지 p.9

■ 광주형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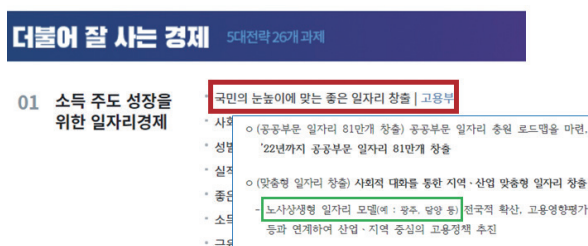
“광주형 일자리”라는 용어는 12대 광주광역시장이었던 윤장현시장이 2014년 6월 후보시절 정책공약으로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에서 시작하였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사실 윤시장의 4대 핵심공약에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형 구축”과 함께 “광주형 융합 문화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공약도 함께 있었으며, 여기에서 제시된 용어가 “광주형”의 시발점이 되었다. 당선 이후 2014년 9월 전담조직인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을 신설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2015년 3월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과 문재인 의원실(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 공동으로 <소득주도성장과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¹⁾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광주 자동차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문재인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출처: 문재인 공식블로그

광주광역시는 2015년 2월 ~ 7월까지 “광주형 일자리 모델”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2015년 8월 광주형 일자리 창출모델(안)을 정의하였다. 이후 2016년 7월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폐지 2018년 11월)하였으며, 이 조례에는 산·학·민·관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실현하는 사회적 합의체인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위원회의 역할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정립”,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정착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새로운 노사 파트너십 형성 및 상생관계 구축”,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이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16년 6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 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제성을 1.107 평가하였으며, 이는 국책사업으로써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와 함께 광주광역시에는 총사업비 3천 30억을 확보하였다. 이후 2017년 6월 노·사·

1) 문재인 공식블로그 2021.01.11. <<https://blog.naver.com/moonjaein2/220291866341>>

민·정 22개 기관이 참여하여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광주형 일자리 기초협약」을 의결하였다.

“광주형 일자리”에서 “광주형”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확장하게 된 계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광주형 일자리의 개념이 포함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²⁾ 후보시절 대선공약집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지역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약속했던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정책에 “광주형 일자리”라는 용어는 빠졌으나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예 광주, 담양)”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18년 5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주형 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 조례에서는 광주형 일자리를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혁신적 노사관계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지역사회 혁신운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광주형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일부개정되었으며, 이 조례에서는 광주형일자리와 함께 상생형지역일자리를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정의하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장현 시장 재임기간(2014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 중에는 특별한 진전이 없었으며, 지지부진 하던 광주형 일자리는 2018년

2)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국정과제 2021.01.10. <<https://www.korea.kr/introduce/govVisionList.do>>

6월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사업 투자의향서 제출”과 함께 급진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2018년 8월 현대자동차 노조 및 민주노총 등의 반대, 지역노동계 노사민정 불참선언 등이 이어졌고, 이후 2018년 12월 5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6일 예정되었던 투자협약 조인식을 앞두고 무산되었다.

2019년 1월 2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기원하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대차에 광주형 일자리 투자를 강조하였으며, 2019년 1월 30일,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노동계와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안)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2019년 1월 31일 광주광역시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광주광역시, 현대자동차, 중앙부처 관계자, 지역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협약식이 열렸다. 2019년 8월 20일에는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합작법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가 출범했으며, 2019년 12월 26일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 기공식(광주광역시 빛그린산단)이 열렸다. 2019년 12월 30일 ~ 2020년 1월 17일 제1차 경력직 직원 공개채용 접수(23명 모집, 358명 지원, 16대1의 경쟁률)가 이뤄졌다. 전국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기업 광주글로벌모터스는 2021년 1월 7일 현재 임원 6명, 경력직 137명을 채용으며, 신입사원 186명 모집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6월까지 170여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9월부터 완성차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 상생형 일자리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를 현실화한 정책으로 국정과제 16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job창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경제주체들이 서로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해 합의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은 2019년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 투자협약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5,754억원(자기자본 2,300억원 / 타인자본 3,454억원)의 자본을 확보하였으며, 정규직 1,000여명의 직접 고용(간접고용 10,000여명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은 이후 정부의 노력으로 2019년 6월 “경남 밀양형 일자리”, “대구형 일자리”, 2019년 7월 “경북 구미형 일자리”, 2019년 8월 “강원 횡성형 일자리”, 2019년 10월 “군산형 일자리”등으로 발전하여 상생협약식을 진행하였으며, 2020년 2월 “부산형 일자리”가 추가로 상생협약식을 진행하였다.

노사 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2020년 4월에는 1월에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선정·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0년 6월 “광주형 일자리”를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하였다. 이후 2020년 10월 “강원 횡성형 일자리”, “경남 밀양형 일자리”를 상생형 지역 일자리

로 추가 선정하였다.

■ “광주형”의 확장 및 미래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 노인 일자리 3만개 창출
- 노인건강타운 권역별 확대
- 광주형 치매안심시설 인증제 도입
- 광주형 노인복지최소보장제도 도입



“광주형”에 대한 용어는 지금까지 “광주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광주형 일자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윤장현 시장 당시 “광주형 일자리”와 함께 “광주형 융합 문화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정책명도 사용하였으며, 민선 7기 이용섭시장은 2018년 6월 선거공약서에서 “광주형 일자리”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좋은 일자리”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반면 “걱정없는 광주”와 관련한 정책에서는 “광주형 치매안심 시설 인증제 도입”, “광주형 노인복지최소보장제도 도입”등을 통해 “광주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광주광역시시는 2020년 6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AI기반 ‘디지털 뉴딜’, 탄소중립(Net-zero)의 ‘그린뉴딜’, 상생·안전의 ‘휴먼뉴딜’을 ‘광주형 3대 뉴딜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주요 정책 속에는 “광주형 일자리”를 포함해, “광주형 공공배달앱”, “광주형 복지혁신 모델”, “광주형 평생주택” 등 다양한 “광주형”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민선7기 후반기를 달리는 지금, 광주시는 변화에 한발 앞서 선도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2021년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광주의 시간’으로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새로운 “광주형”을 내세우고 있다. 광주시가 추구하는 “광주형”은 우리가 생각하는 “광주형”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것일까? 광주시의 ‘광주형’이 시민이 생각하는 ‘광주형’과 연결되는 지점은 어디쯤일까?



2. 내가 생각하는 광주형 문화란?

‘광주형 문화’는 지역민의 삶을 반영해야 하고,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지향하며, 더 나은 가치를 위해 자신의 신분, 소속,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는 활동들이다. 사적취미를 넘어 예술을 기반으로 소통하고,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예술을 통한 유대감 속에서 자신과 지역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는 것. 이것이 광주형 문화정책의 궁극적 목표이다.

1. ‘광주형 문화’ 익숙하지만 모호한 개념

‘광주’, ‘문화’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친숙한 단어인데 비해 ‘광주문화’, ‘광주형 문화’는 익숙하지만 개념정의가 명확하지 않는 어휘이다. 이는 익숙한 단어의 결합일 뿐 개념에 대한 체계적 연구나 풍부한 논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더욱이 ‘문화’ 개념이 매우 복잡하고 포괄적이며 혼란스러운 단어라 그러할 것이다. 예컨대 ‘광주형 문화’는 광주지역에서 창작되고 유통되고 향유되는 문화 활동, 광주를 기반으로 형성된 학맥과 예맥의 작품들, 광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문화이벤트나 행사, 중앙 또는 다른 지역과 대비되는 독특한 사업이나 정책, 광주정신과 같은 일종의 집합심성 또는 지향해야 할 가치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광주형 문화’에 대한 시공간의 범위, 창작주체 선정기준, 창작활동의 결과와 내용물이 지닌 지역성 판별을 어떻게 설정할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나는 익숙하고 진부하지만 모호하고 공백이 있는 이 개념들과 씨름해 보며 ‘광주형 문화’의 특성을 드러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의 일상 깊숙이 결합되어 있는 익숙한 연구대상을 적정한 거리를 두고 낯설게 바라보며 현상을 이해하고 의미와 맥락을 분석하고자 한다. ‘광주형 문화’를 낯설게 바라본다는 것은 경험을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매개된 경험으로, 지역을 주어진 것이 아닌 만들어진 그리고 여전히 구성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¹⁾. 결국 ‘광주형 문화’는 고정된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실천적으로 구성되는 헤게모니임을 전제로 한다. 문화의 실천적 의미를 이해하고 결과물을 구성하는 것은 서울 중심의 보편적 문화와 상대적 거리를 두고 지역문화가 가진 긍정적 의미를 드러내는 행위가 될 것이다. 또한 보편성보다 차이와 이질성을 강조하고, 고정되고 박제화 된 고유성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실존을 보여주는 의미가 될 것이다²⁾.

1) 박해광 외, 2012, 『지역문화와 문화정치』, 전남대출판부, 27쪽

2) 박해광 외, 2012, 『지역문화와 문화정치』, 전남대출판부, 28쪽

2. '광주형'에 대한 담론분석

'광주형'이란 단어는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말한다는 것은 의미를 생산하는 것이며 말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을 동반하기 때문에 '광주형'이란 단어를 누가, 언제,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고 확대되고 재생산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광주형'의 개념을 분명히 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빅카인즈 뉴스검색(<https://www.kinds.or.kr>)을 통해 '광주형' 개념의 용례와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1>은 빅카인즈에서 '광주형'이란 키워드를 통해 검색한 결과와 그것의 주요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약 4,600여건이 검색되었으며 중복되거나 주제에 벗어난 내용 등은 생략하고, 핵심메시지를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빅카인즈 광주형 키워드 검색 및 주요내용 재구성

구분	건수	언론사	발언주체	발언장	발언 주요내용
1996	1	전남일보	오준성 교수	시민환경 생활축제	광주형 폐기물재활용처리시스템 개발돼야..
2006	1	전남일보	광주미술협회 박지택 회장	인터뷰	광주형 랜드마크를 꼭 조성해주길 당부..
2008	2	전남일보	이민원 교수	토론회	광주형 기업·일자리·수요 창출을 비롯해... 향후 비전을 제시
2009	1	광주일보	광주시건축주택과장	기고문	광주형 미래주거 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2010	10	전남일보	이용섭 후보	보도자료	지역 특성에 맞는 광주형 사회적 기업 육성 강조
		전남일보	남구청장 정재훈 후보	보도자료	남구에 광주형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치
		전남일보	광주시교육감 장휘국 후보	보도자료	광주형 혁신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
2011	7	무등일보	-	보도자료	(주)대농산업은 광주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 지난 12일 현판식을가졌다.
		광주매일	서정훈 광주 NGO센터장	기고문	광주형 민·관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장 광주형 여성친화 마을 공동체 모델
2012	8	광주매일	광주미협회장 정순이	보도자료	광주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쇼셜디자인 사업단'을 중심으로 한 공공미술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아시아경제	(사)광주협동조합 연구소 소장	세미나 발제문	광주시의 실정에 맞는 광주형 협동조합 5가지 유형을 제시
2013	28	광주일보	강운태시장	인터뷰	광주형 행복 복지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광주매일	광주자치행정국장	기고문	'광주형 행복 복지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의견 수렴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광주시가 '광주형 행복 복지모델'을 마련 3일 발표했다.

구분	건수	언론사	발언주체	발언장	발언 주요내용
2014	56	아시아경제	광주광역시	사업설명회	광주형 임대아파트 건립추진 계획과 연계
		전남일보	강운태시장	출마선언	광주형 생명구제를 구체화한 '시민자치복지도시 광주' ..제시했다
		전남일보	광주발전연구원장	보도자료	협약을 통해 광주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정책들을 다양하게 마련
		아시아경제	양형일 후보	보도자료	광주형 육아공동체 모델을 구축
		광주매일	윤장현후보	보도자료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 제시
		전남일보	윤봉근 후보	보도자료	광주형 창의·혁신학교 운영
		국민일보	윤장현 당선자	인터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겠다
2015	138	무등일보	장휘국 교육감	보도자료	광주형 자유학기제, 중학교 전면 시행
		전남일보	광주도시공사사장	보도자료	광주형 도시재생사업의 해법을 찾겠다
		전남일보	참여혁신단	보도자료	광주형 마을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
		광주일보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5월부터 광주형 생활임금제 도입한다
		광주매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광주형 복지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
		광주일보	광주여성재단	보도자료	세대공감 광주형 여성정책 발굴
		전남일보	문재인대표	간담회	광주시청에서 광주형일자리 간담회 개최
		무등일보	노사민정협의회	보도자료	광주형 일자리, 의제로 채택, 집중 논의
		광주매일	세계청년축제준비 단장 강수훈	인터뷰	일상성의 광주형 청년축제를 만들고 싶다
		아시아경제	윤장현시장	인터뷰	광주형 직장맘지원센터'설립
2016	236	광주매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올해 안전하고 쾌적한 광주형 도시환경 구축
		무등일보	광주문화재단	보도자료	광주 문화예술의 나무를 키워가는 광주형 메세나
		무등일보	서정성후보	보도자료	효율적인 광주형 치매서비스망 구축
		아시아경제	이용빈후보	보도자료	광주형 시민참여운동을 전개해나가겠다
		한겨레	기획재정부장관	기자간담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적극지원
		서울경제	윤장현시장	보도자료	금호타이어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동참
2017	371	무등일보	광주문화재단	보도자료	광주형 문화예술사업의 안착 및 브랜드화
		광주매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광주형 일자리 혁신학교 개강
		광주일보	문재인후보	연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전국으로 확대
		광주매일	윤형선 센터장	보도자료	광주형 선도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
		무등일보	문재인대통령	국정과제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의 해법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꼽은 가운데..
		광주매일	LG경제연구원	현지조사	광주형 일자리 현지조사..박병규 단장과 면담
		광주일보	보도자료	보도자료	'광주형 일자리 전국 확산'이 새 정부 국정과제 채택 후... 전국지자체의 벤치마킹 이어져
2018	1478	아시아경제	이용섭당선인	당선소감	광주형 일자리모델을 성공시켜 전국으로 확산
		국제신문	현대차노조	보도자료	광주형 일자리 참여 방침 철회
		매일경제	청와대	보도자료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 추진
		서울신문	이용섭시장	인터뷰	광주형 일자리 사업 노동계 불참, 매우안타깝다
		한국경제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광주형 일자리'타결...내일 최종안 공동결의할 듯
		MBC	MBC	보도	현대차 노조 광주형 일자리 저지 파업돌입

구분	건수	언론사	발언주체	발언장	발언 주요내용
2019	1497	YTN	문재인대통령	신년회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척도
		전남일보	고용노동부장관	간담회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될 경우... 자원예산 충분
		조선일보	현대차노조	입장문	광주형 일자리 추진보다 군산공장을 재가동 해야
		한겨레	한겨레	사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30일 최종 타결
		경향신문	문재인대통령	연설문	광주형 일자리가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한 역사적 전환점
		머니투데이	현대차노조	입장문	광주형 일자리 철회위해 3년간 총력투쟁
		무등일보	광주상의	기자간담회	광주형 일자리 투자자 확보에 협력
		광주일보	광주은행장	인터뷰	광주은행 '광주형 일자리 사업' 투자한다
		전남일보	이용섭시장	기자회견	'광주완성차공장' 합작법인 7월 설립
		무등일보	송갑석 의원	보도자료	'광주형 일자리법' 국회 법사위 통과
		KBS	KBS	보도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착공식
2020	768	서울경제	한노총	기자회견	"광주형 일자리 협약파기" 선언
		매일경제	현대차노조	입장문	"광주형 일자리서 손 배라"...
		국민일보	광주시민사회단체	보도자료	광주형 일자리는 세계에서든 드문 사회적 실험
		광주일보	이용섭시장	보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해법..청와대 지원 요청
		세계일보	세계일보	보도	노동계 복귀... '광주형 일자리' 재시동
		광주매일	광주글로벌모터스	보도자료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을 짓는 합작법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 경력직 53명 추가 채용
		광주매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광주형 일자리 인증기업 7개사 인증서 수여

‘광주형’이란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 건수는 총 4,600여 건이고 이를 다시 연도, 건수, 언론사, 발언주체, 발언장소, 주요내용 등으로 정리한 것이 <표1>이다. 특징적인 것은 ‘광주형’의 개념과 내용이 시기에 따라 변화됨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3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1기는 ‘광주형’이 언급된 1996년부터 2014년까지로 ‘광주형’이란 개념이 명확해진 않지만 ‘광주에서 만들어진’, ‘광주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광주를 대표하는’ 등의 의미로 사용된 시기이다. ‘광주형’은 학계나 문화계 인사, 건축 및 복지 관련자 등 시민사회 진영에서 활동하는 이들에 의해 주로 사용되었고, 선거 후보자의 공약으로 구체화되었고 언론에 자주 노출되며 당선자의 정책으로 안착되는 특징을 보인다.

제2기는 2015년에서 2017년까지로 ‘광주형’의 개념이 체계화되어 시정 전반으로 확대되는 시기이다. 여기서 ‘광주형’은 ‘광주에서 만들어진 고유한 정책’, ‘새로운 민·관 협치모델’과 같은 지역의 문제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의미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윤장현 시장이 당선되며 정책공약이 교육, 문화, 도시환경, 시민사회 등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특징을 보인다. 발언의 주체는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정치인 등이 ‘광주형’을 주로 언급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이슈로 확장되었고, 대권주자 및 유력 정치인이 ‘광주형 일자리’를 호명하게 된다.

제3기는 2018년에서 현재까지로 ‘광주형’의 대부분이 ‘광주형 일자리’로 집중된 시기이다. 윤장현 시장이 퇴임하면서 다방면에서 진행되었던 ‘광주형’ 정책은 퇴장하지만, ‘광주형 일자리’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이어지며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이제 ‘광주형 일자리’는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을 대표하는 보통명사처럼 활용되었고, 발언자 역시 대통령, 당대표, 중앙부처 관료, 현대차 노조, 한국노총 등으로 확장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의 광주가 민주주의 촛불이 되었고 이제는 광주형 일자리라는 경제민주주의의 불씨가 될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노사간 양보와 협력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광주글로벌모터스라는 광주완성차 공장 설립이란 소중한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노·사·민·정 대타협은 쉽지 않아 현재도 갈등은 봉합과 표출이 반복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위기를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3. ‘광주형 문화’ 사례와 특성

‘광주형’은 최초 민간 전문가들이 제안하며 탄생한 개념으로 이후 정치인의 공약, 시정부의 정책사업, 정부 국정과제 등으로 용례가 확대되었다. 특히 초기 개념이 ‘광주에서 만들어진’ 혹은 ‘광주의 특성을 대표하는’ 단순한 의미에서 ‘광주에서 만들어진 고유한 정책’, ‘새로운 민·관협치 및 혁신모델’과 같은 의미로 확장되었고, 이후 5월 광주정신과 결합되며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지배담론으로 활용되었다. ‘광주형’을 통해 광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사회의 협치를 이뤄내고, 광주란 도시의 매력과 자산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는 있지만 문화 분야에서 ‘광주형’의 용례와 의미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광주형 일자리’처럼 ‘새로운 민·관협치 및 혁신모델’과 같은 긍정적 의미는 수용할 수 있지만, 정부가 주도하고 목표를 향해 일사분란하고 고분고분하게 움직이는 방식은 문화 분야에선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기존의 가치와 통념에 대한 처절한 부정, 주류에 대한 체질적 거부와 사회 비판적 성향은 문화예술계의 특징이자 존립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화적 특성 혹은 예술가의 기질은 ‘광주형’의 특징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광주형 문화’는 어떤 가치를 담아야 하고,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일까? 나는 여기서 무등산 풍경소리와 세월호 상주모임에서 연대활동을 보여준 예술가의 사례를 통해 ‘광주형 문화’의 가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무등산 풍경소리

무등산 풍경소리는 2002년 증심사 주지였던 일천스님이 제안했고 석장 스님(문빈정사), 임의진 목사(강진 남녘교회), 김인주(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운동본부장), 오자섭(생명나눔실천회 상임이사), 박문옥(가수) 등이 기획한 이야기와 노래로 꾸며지는 음악회이다.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종교인 모임(대표 전영 신부)’으로 노래 속에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메시지를 담아 전달하

고, 종교 간의 화합을 노래했다. 2002년 7월 첫 공연을 시작으로 매월 1차례씩 증심사 특설무대와 성당, 교회, 원불교 교당 등에서 번갈아 열렸으며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자리매김 했다. 특히 사회자, 영상촬영, 진행, 섭외 모두 무료봉사로 이뤄졌고 200명의 고정 관객들이 왔으며, 증심사는 저녁 무료공양으로 대접했다³⁾.

2) 세월호 광주상주모임과 5·18 민주대성회의 예술가 연대활동

‘세월호 3년 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은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하며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만든 모임으로 구성원은 30~40대 부모들, 20대 청년, 10대 청소년 등 지극히 평범한 시민들이다. 처음 5개 마을이 연대하고 여기에 촛불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예술인들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19개의 마을촛불이 들불처럼 생겨났다. ‘진실 마중 사람띠잇기 퍼포먼스’, 광주비엔날레 시민참여 ‘세월호 진실나무 프로젝트’, 광주·전남지역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팽목항 기억의 조형물’, ‘길 위에서 희망을 묻다’라는 주제강연 등의 문화행사를 개최하였고 빛고를 1,000일 순례도 진행했다⁴⁾.

2014년 5·18 34주년 기념식은 취소되었다.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에 항의하고, 세월호 참사에 따른 추모 분위기 동참 차원에서 5·18 34주년 기념행사 위원회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의 진보적인 시민단체는 5월 17일 민주대성회를 개최했다.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를 뜻하는 304개의 꽃그림 영정을 앞세워 ‘5·18 민주대행진’을 벌였다. 40분에 걸쳐 304개 꽃그림 영정을 무대 배경으로 맞이했고, 윤진철 명창의 국악 공연과 광주지역 연극인들은 34년 전 시민군을 재현하는 극을 올렸으며, 가수 김원중의 ‘직녀에게’ 등 공연이 이어졌다⁵⁾.

위의 사례들은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별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경험이 아닌 매개된 경험으로, 박제화 된 문화행사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실존을 드러냄으로써 ‘광주형 문화’의 특성을 재구성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무등산 풍경소리는 생명과 환경이라는 인류사회의 근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종교적 신분, 예술적 장르의 벽을 넘어 공존과 연대의 장을 열었고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문화행사가 되었다. 이를 기획한 것은 종교계와 예술계 등 시민사회 단체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힘이었고, 부족한 예산은 자원봉사와 시민모금으로 충당되었다. 당시 사회자였던 최명진 목사는 “문화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양편의 선택으로 갈리는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을 순환시켜 생명 본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낸다. 이것이 문화가 갖고 있는 힘이며 풍경소리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다”라고 했다.

3) <https://bud1080.tistory.com/1997> [불교타임즈]의 내용을 발췌

4) 전남일보, 2014년 10월 20일자 <명망가 아닌 자발적 개인들 주도...생활문화형 운동> 및 <http://cafe.daum.net/lifepeace21>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 발췌

5) 민중의 소리, 2014년 5월 18일자. <5.18민주대성회 금남로서 1만명 모여 “박근혜는 물러나라” 외쳐> 발췌

두 번째 세월호 상주모임과 2014년 5·18 민주대성회 때 우리 지역의 예술가들이 연대했던 활동도 특이하다.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슬퍼하며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간, 재능, 자원 등 모든 것을 내놓으며 함께 행동하는 모습들. 5·18 전야제 취소로 행사 지원금이 없기에 행사진행에 필요한 장비와 출연료를 지역예술가들이 각출하며 돈보다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심전심으로 나누는 행동들. 물론 다른 지역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생각과 기획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과 기획을 연대행동과 사회적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광주는 연대와 실천이 실제로 가능한 도시다. 결국 문화예술은 단순히 대중의 즐거움이나 기분 전환을 위해 존재하는 문화산업이 아니라,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는 부단한 노력의 과정에서 얻은 결과물이다⁶⁾. 이러한 명제가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 광주이고 이런 것이 ‘광주형 문화’라 감히 말하고 싶다.

4. 내가 생각하는 ‘광주형 문화’

광주는 예향으로 불리어왔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인다. 예향의 근원과 뿌리를 가사문화와 소치-미산-남농-의재로 이어지는 남종화 전통, 임방울로 대표되는 남도 국악으로 정의하며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으로 인식한다. 또한 광주비엔날레 창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 지정 등을 통해 광주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문화도시라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공간적으로 광주란 지역에서 생산되고, 광주에서 활동한 인물과 계보에 의해 창작되고, 타 지역에 없는 광주만의 독특한 문화행사를 ‘광주형 문화’라고 말하면 타당할까?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것만으로 ‘광주형 문화’를 정의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

‘광주형 문화’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의 삶을 반영해야 하고,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지향해야 하며, 더 나은 가치를 위해 자신의 신분, 소속,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는 연대활동들로 정의하고 싶다. 지역민의 삶의 애환을 담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인간의 도리로서 당연한 행위, 그러면서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대하는 것. 무등산 풍경소리, 세월호 상주모임과 5·18 민주성회에서 보여준 예술가들의 연대방식이 ‘광주형 문화’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닐까? 궁극적으로 ‘광주형 문화’는 사적취미를 넘어 예술을 기반으로 소통하고,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예술을 통한 유대감 속에서 자신과 지역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는 것. 나는 이것이 광주형 문화정책의 궁극적 지향이라 생각한다.

6) 김석현 외, 2018,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위즈덤하우스.

‘광주형’ 문화예술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제언
- ‘광주형’ 미술이란 무엇인가 -



김허경

전남대학교 기초교육원

(미술학 박사)

3. '광주형' 문화예술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제언

-'광주형' 미술이란 무엇인가-

예향남도에 자리한 광주는 오랫동안 축적해온 지역의 역사성, 전통성, 지역 공동체의 삶을 매개로 문화예술의 지평을 넓혀왔다. 광주는 2002년 '문화수도' 육성을 시작으로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의 구심점이자 문화예술 메카를 지향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2014년부터는 '광주형 일자리'라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광주형' 모델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 정책에서 '광주형'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광주형'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으로 '광주형' 근현대미술자료관 설립,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형' 브랜드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안해 본다.

1. '광주형 미술'이란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광주다움, '광주형'이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일반적으로 '형(型)'의 의미는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이루는 유형(類型)이나 형태(形態)"를 일컫는 말로 모형, 본모기를 뜻한다. 미술 작품으로 표현해보면 '어떤 특성이 담긴 형태' 또는 '완성된 작품을 줄여서 만든 본보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광주형'은 어떠한 형태, 또는 본보기로 정의할 수 있는가. 문화예술 측면에서 '광주문화의 정체성'을 반추해보면 '광주형'이라 지칭할 수 있는 고유한 예술적 감성을 발견하게 된다.

광주·전남 화단은 소치 허유 이래 남종문인화의 전통과 함께 '예향'의 뿌리를 내린 후 약 1백 년 동안 미산 허형, 의재 허백련, 남농 허건으로 화맥을 이어왔다.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쳐 남도 수묵화의 전통적 화법의 기반 위에 서구풍의 근대미술을 받아들이면서 '광주형 미술'의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30년대 오지호는 우리의 자연풍광을 유기적인 생명체로 이해하고 자연에 입각한 '사실(寫實)'과 색채를 탐구하여 광(光)이 회화의 본질을 이루는 근원임을 강조하였다. 오지호의 한국적 인상주의 화풍은 정신적으로 문기(文氣) 짙은 산수의 바탕에 서양의 기법을 접목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을 맞이한 광주화단은 한국전쟁기라는 격동기 속에 화단의 주류로 자리해온 구상미술에서 벗어나 비구상미술을 시도하였다. 김환기, 양수아, 강용운의 선도적인 추상화법은 의식보다는 감성을, 논리보다는 행위를 외치며 한국 현대미술의 물꼬를 열었다. 무엇보다 1980년대 민중미술은 광주민주화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작가들에 의해 민중의식의 총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민중미술은 광주시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해원(解冤)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대동과 상생을 확산시켰던 미술인들의 현실 비판과 참여, 저항정신의 결과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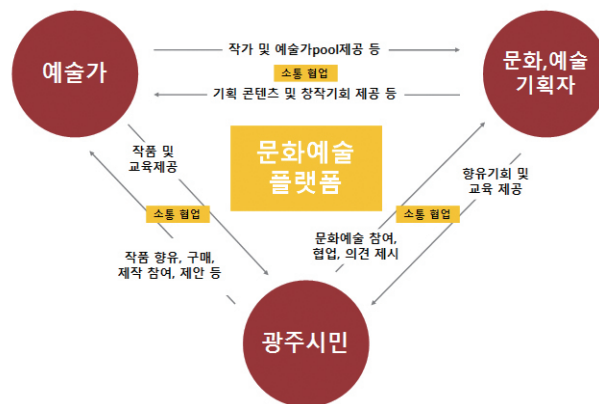
이처럼 광주 미술인들은 스스로 직면한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외세주의에 편승하거나 보편주의를 거부하는 예술이념을 추구해왔다. 이들은 오랜 공동체적 역사 경험의 토대 위에 소외와 실존, 분노와 슬픔을 이겨내고자 줄곧 '의로움'을 내세웠으며 이는 예술적 풍토로서 민주, 인권, 평

화의 정신으로 뿌리내렸다. 광주 지역민의 공통적인 삶에서 묻어나는 역사성의 발현은 바로 ‘광주형’ 즉 광주 문화예술의 고유한 특성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의 자양분이다.

II. ‘광주형’ 문화예술플랫폼 운영(안)

광주광역시시는 2021년 1월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AI) 중심의 디지털·그린·휴먼 등 ‘광주형’ 3대 뉴딜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실현하고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추진할 10대 핵심시책을 살펴보면 광주비엔날레, 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뿐 아니라 5·18 3법 개정을 계기로 5·18의 전국화·세계화를 본격 추진해 5·18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을 본격화하고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505보안부대 옛터 역사체험공간 조성, 옛 적십자병원 원형보존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1년을 ‘광주의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정책은 ‘광주형’ 3대 뉴딜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 ‘광주형’ 문화예술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제안해 본다.



〈‘광주형’ 문화예술 플랫폼 구성(안)〉

‘광주형’ 문화예술플랫폼은 소통과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를 재발견하고 재구성하여 문화의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을 추구해야 한다. 여기서 문화예술플랫폼이란 유·무형의 기반(Base)을 통해 가치를 증대시키는 유용한 사업 방식으로 지역 문화의 생산과 소비를 이끄는 틀(Framework)을 의미한다. 따라서 광주지역의 예술인, 광주시민, 문화예술기관들이 공급자, 이용자, 운영자로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공동 진행하거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방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광주 문화예술의 주체자인 예술인의 상황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로 부터 열악

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예술 활동에 관한 안전성, 제도화된 구조의 혜택도 미흡한 상황이다. 물론 사회보장제도의 외각에 있던 예술인 복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11월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실행되었지만, 여전히 4대 보험으로 대표되는 기초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예술인들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술가들의 생활 기반안정과 직업역량 강화,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문화예술플랫폼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예술가들의 문화적 활동을 보장할 방안으로 지방정부의 사례를 검토하거나, 컨소시엄, 사업 기관, 최저수입, 연금 조례, 미술인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안정성 등등 다양한 측면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더불어 문화예술기관의 독자적 활동이나 운영이 아닌 협업 중심의 플랫폼 구축을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광주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시민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광주형’의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시민포럼을 발족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총 10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유네스코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협의체>와 4개의 분과 위원회로 이루어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ACCF)>를 통해 체계적·종합적·실제적인 방안을 소통하고 협업해 나가야 한다.

이밖에도 민·관의 원활한 소통창구인 <광주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인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함께 현 포스트코로나 시대 문화예술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도 동반되어야 한다.

III. ‘광주형’ 문화예술플랫폼 활성화 방안

‘광주형’ 문화예술플랫폼 활성화 및 가치를 창출하려는 방안으로 ‘광주형’ 문화예술의 자생성과 아이덴티티 확립을 강화할 수 있는 ‘광주형’ 근현대미술 자료관(가칭) 설립을 제안한다. 또한 광주 시민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광주형 통합 홍보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범 및 운영 모델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형’ 브랜드화의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1. ‘광주형’ 근현대미술 자료관(가칭) 설립

■ 현황

최근 한국미술계는 전시를 극대화하는 하나의 기법으로 관람객과 소통하는 유기적 방법론에 주목하고 있다. 아카이브를 통해 작가의 생애와 화업에 관한 자료수집, 기록을 구축하는 ‘아트 아카이브(Art Archive)’와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이 증가하는 추세다.¹⁾ ‘역사는 기록으로 말한다’라

1) 2005년은 인사미술공간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만든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에 이어 2008년 김달진 미술자료실이

는 말이 의미하는 바처럼 국공립부터 사립미술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들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는 등 미술관·박물관의 운영 방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 필요성

한국 근현대미술의 흐름에서 오지호, 김보현, 김환기, 천경자, 양수아, 배동신, 오승우, 오승윤 등은 중앙화단의 지향이나 추종 현상이 아닌 그들의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해 나간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그러나 이들 작품은 보존·관리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지 못한 채 대다수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의 미술관에 기증되었다. 지난해 탄생 100주년 맞은 양수아, 배동신 작가의 경우만 보더라도 작품과 기록 자료들은 대중과 공유되지 못하고 대부분 유족에 의해 사적으로 관리되었다. 작가의 예술세계를 증명하는 실물자료(기록)를 소실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사회적 유산으로 등록,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장소가 없다는 점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 작품뿐 아니라 물리적인 환경으로 인해 공개하지 못한 유일성을 지닌 1차 자료들에 관한 보존, 연구할 수 있는 저장소 공간이 시급하다.

■ 기대효과

광주미술 아카이브는 과거의 증거로서 역사성을 지니는 동시에 하나의 작품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전시, 교육, 학술, 출판 등 콘텐츠 개발 및 활용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다. 보존의 기능뿐 아니라 기초 연구와 수집 자료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과거, 현재, 나아가 미래와 맞닿는 ‘광주형 미술’ 자료의 전문화 및 소장품의 특성화를 갖출 수 있다. 광주미술 아카이브를 통한 ‘광주형’ 근현대미술 자료관(가칭) 설립은 동시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지역 문화예술의 정체성, 즉 ‘광주형 미술’을 구축할 수 있다.

2.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형’ 브랜드화

■ 현황

도시 브랜드 활성화 전략의 기본은 도시 브랜드 비전과 미션을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도시 브랜드 정립에서 시작된다. ‘광주형’ 브랜드는 창의도시 마스터플랜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 등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정책을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시는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된 이후 미디어 338, 홀로그램극장, 미디어 아트 놀이터 등 6개의 특화공간을 중심으로 미디어아트페스트벌, 레지던시프로그램, 창작 랩 운

‘미술자료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하였고 같은 해 비디오 아카이브 2천여 점을 소장한 백남준아트센터를 개관하여 주목받았다. 이후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설립,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이루어지면서 아시아문화를 중심으로 수집정책을 수립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 필요성

시민들의 삶 속에서 미디어를 다양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시환경조성에 따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BI 및 슬로건을 개발하여 공공시설 및 각종 홍보물, 관광상품 개발, 마케팅전략에 적용해 광주만의 도시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 창의벨트 권역과 광주 폴리와의 상호연계에 의한 랜드마크 조성, 광주 역사문화관광 자원이 집중된 문화전당 주변권역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형’ 브랜드 조성이 필요하다.

■ 추진전략

첫째,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일환으로 시작된 ‘광주폴리 프로젝트’의 경우 2013년 독립적인 프로젝트로 도시 공간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어반 폴리(Urban Poly)와 사업콘텐츠를 연계하여 ‘광주형’ 미디어아트 랜드마크를 조성해 나간다.

둘째, 핵심거점지역에 자리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야외 야간경관 조성, 야외 문화행사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전당 야외 공간을 활용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한다.

셋째, ‘광주형’ 도시브랜드 관리시스템을 담당할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아이 서울 유’와 같이 ‘광주형’의 상징성을 담아낸 미디어아트 사인물, 디자인을 개발하여 통합적 관광콘텐츠 개발 및 도심관광 사업에 활용한다.

넷째, ‘광주형’ 도시 브랜드 전담조직은 ‘문화전당권역 도심관광 활성화 협의회’ 뿐 아니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해 광주문화재단, 광주 동구 등 9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미디어 아트 야간경관 조성을 위한 협력시스템을 가동한다.

■ 기대효과

현재 계획 운영 중인 창의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랜드마크를 구성하고 어반플레이(도시문화콘텐츠 창작)를 시도하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발돋움한다. 특히,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245’의 중심에 위치한 전당권역, 5·18민주광장을 일상과 관광이 결합된 선진 관광형 문화광장(Arts Square) 조성함으로써 인권·평화의 도시, 빛의 도시를 아우르는 ‘광주형’ 랜드마크를 부각시킬 수 있다.

또한 광장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청년들의 창의적 활동 공간,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국내외 지역 관광유입을 도모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광주형’ 브랜드화 구축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의 입지뿐 아니라 ‘광주형’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한다.

정리해보면 지역문화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중심도시 광주’,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예술관광 도시 광주’는 바로 ‘광주형’ 문화예술플랫폼 육성사업의 활성화에 달려있다. 향후 국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 플랫폼사업 운영 사례 분석과 연구가 더해진다면 ‘광주형’ 문화예술플랫폼 활성화 및 구축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04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김수환

광주남구도시재생지원센터장
(도시계획 박사)

4.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광주광역시에
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다
양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하여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고자 함

1.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요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쇠퇴한 도시의 재활성화를 통해 주거 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향상,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7년 시범사 업을 시작으로 5년간 매년 10조씩 총 50조를 투자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차이점은 도시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기존 도시정비사업은 획일적인 대규모 철거형식이었으며,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지구 지 정 및 계획수립 절차가 복잡하고, 주민동의나 의견수렴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주민 들의 체감도가 매우 낮았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의 대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행정이 주도하는 하향식 방식에서 지 역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변화하고, 대규모사업에서 생활밀착형 소규모 사업 중 심으로 규모를 다양화하는 등 기존 정책과 다르게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구도심과 불량한 주거지역 등을 개선하고 사회취약 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 지 역의 가치를 보존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2.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3년 4월 30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도 시재생법이라 함)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재생법 10조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 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방식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며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 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5개의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음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방식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 린형)와 중앙정부(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로 나누어 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2017년에 는 68곳, 2018년 99곳, 2019년 116곳, 2020년 23곳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뉴 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동네살리기 3곳, 주거지지원형 4곳, 일반 근린형 2곳, 중심시가지형 3곳, 경제기반형 1곳 등 총 13곳이 선정되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와 5개 구청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2020년 9월 기준 : 광역 1곳, 기초 3곳, 현장 12곳)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방식은 광역센터인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사단법인, 그 외는 기초와 현장센터는 모두 행정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3.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과거에는 물리적 환경 개선을 목표로 삼아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부동산투기, 원주민의 내몰림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면, 광주시 도시재생은 원형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경제·문화적 활력 회복과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까지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였음¹⁾
- 이어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예방·의향·미향 등 광주다움이 묻어나는 도시재생을 통해 원도심의 가치와 활력이 회복되고 주민이 다시 돌아오는 완성도 높은 도시재생”이라고 말하였음
- 노경수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사장은 “급변하는 도시의 개발환경에서 도시재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²⁾ 라며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공공기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안평환 도시재생공동체센터장은 “광주다운 도시재생”이란 말로는 쉬운데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라고 말하였음³⁾
-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천득염 교수는 “광주다운 도시”의 개념과 정책방향에서 과연 무엇이 “광주다운 도시재생”인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고 하였으며, 80년 5·18 당시 광주시민들이 보여줬던 ‘따뜻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낡고 오래된 집들을 허문 뒤 재개발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를 세우는 것이 ‘광주다운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고 하였음⁴⁾
- 그러나 이런 모든 것보다 ‘따뜻한 광주’라는 무형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며, 건물과 외관은 번드르르하지만 사람들의 얼굴은 성마르고, 행동이 거칠다면 광주는 ‘가까이하기에는 여전히 두려운 도시’로 남을 수밖에 없으며, ‘광주다움’은 ‘사람냄새가 나는’ 것이라 믿으며, 건물에 서도, 길거리에서도, 얼굴표정에서도 사람냄새가 풍겨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1) <https://www.news1.kr/articles/?3667942>

2) <https://www.fnnews.com/news/201812021813272096>

3) <https://blog.naver.com/soho1221/221524416391>

4) <http://cafe.daum.net/dgbudongsantech/ltUu/6097?q=%EA%B4%91%EC%A3%BC%EB%8B%A4%EC%9A%B4%20%EB%8F%84%EC%8B%9C%EC%9E%AC%EC%83%9D>

- 과연, 도시의 광주다움을 살리고, 정의로운 도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움
- 서울시립대학교 이충기 교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크게 보면 내용적 재생과 물리적 재생이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안 되며 긴 호흡으로 천천히 추진해야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성과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정책 방향과 좋은 가치도 사라진다고 하였음
-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이나, 그동안 주민들은 도시재생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내용도 모르고 지자체의 행정을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고 행정이나 주민들도 갑자기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함⁵⁾
-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도시쇠퇴의 명확한 진단과 역사, 문화, 산업, 경제 등 종합적 판단을 근거로 도시재생의 해결 방법을 제안해야 하며, 뜻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과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함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구자훈 교수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이동 특성에 따른 도시패러다임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도시규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달라져야 하며, 인구감소 시대에 도시 쇠퇴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시대에는 복합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말함⁶⁾
- 이는 지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중앙정부를 포함한 모두의 문제이며, 지속가능 패러다임에서 재생패러다임으로의 변화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런 배경 아래 도시재생의 과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도시공간정책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에 청년들과 활동가, 창업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외부나 민간전문가와와의 협력, 지역을 사랑하는 핵심 공무원이 필요하다며 각각 주체간의 열정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함
- 마지막으로 2014년 도시재생사업 시행 후 거의 모든 도시재생 지역을 돌아보았고 성패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결국 “사람”이라고 밝히며 단체장들의 무언의 지원과 도시재생 담당자가 장기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곳이 결국 도시재생의 성공을 가져왔다고 말함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지역의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사람중심 주민참여를 통해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경제·문화의 활성화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 생각하게 됨

5) <http://cafe.daum.net/dgbudongsantech/a9j/47237?q=%EA%B4%91%EC%A3%BC%EB%8B%A4%EC%9A%B4%20%EB%8F%84%EC%8B%9C%EC%9E%AC%EC%83%9D>

6) <https://blog.naver.com/nlncm/221531680327>

-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쇠퇴한 도시공간을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사람들이 서로 모여 생활하고 활동하는 장소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마중물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함
-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먼저 도시의 쇠퇴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통합마스터플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도시 쇠퇴도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중인 생활형 SOC사업, 혁신지구, 인증사업 등 각종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을 통해 중복된 사업을 피하고 주민들의 생활권을 고려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13건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며, 안정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도시재생 전문직위 확대와 도시재생 직류를 신설하고 경력직 전문가를 공개적으로 채용하여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며 도시재생 교육수요의 충족과 적정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경우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의 확대, 위탁교육기관의 확대로 도시재생 교육기간과 교육시간에 대한 유연성 확보와 탄력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함
- 넷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어 주민들의 사업참여와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주민협의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함.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부여와 협동조합,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자생력이 강한 일자리창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맺음말

-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2017년 12월 '도시재생 뉴딜 추진단'을 구성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 부지매입의 어려움, 지방재정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진척이 늦어지고 있음
-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시점에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만,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런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논의하고 소통한다면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함
- 사람들마다 생각이나 사고가 다르듯이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해 가면서 하나하나의 미션을 해결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타 지역과 차별화되게 만들어가고 창조해나간다는 것은 또 다른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우리들이 앞으로 안고 해결해 나가야 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함
- 마지막으로 지자체장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목표와 신념이 어떠한가에 따라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만들어 나아가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며, 지자체장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소통하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됨

05

광주형 산업발전 방향

안수창
한국광기술원 기업성장기획실장
(공학 박사)

5. 광주형 산업발전 방향

지역의 주력산업들은 이제 광주의 주요한 산업비트목이 되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제 신규 유망 산업으로 지목되는 자율형전기차, 신재생에너지, AI 산업들과 함께 성장하고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재들의 활발한 생태계 진입이 필요하고 보호해줄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 들어가며

지난 10년간 광주의 산업은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많은 탐색을 했던 시기로 기억된다. 삼성 광주공장, 기아자동차 등은 지역 산업 생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점차 해외로 이전하거나 산업변화에 맞춰 광주에서의 생산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제 광주에 남아있는 하청, 협력 기업들의 생존을 고민하고 미래전략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 발맞춰 지역에서는 광, 생체의료, 가전, 금형 등의 주력산업들을 키워왔으며, 지역으로 유치한 연구기관, 지원기관들과 함께 나름의 성과를 이루어왔다. 2000년대 초반부터 육성해온 지역 대표산업들은 이제 지역제조업 생산의 82.7%를 점유하며 어느 정도 양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여기에는 앞서 이야기한 상당수의 지역내 대기업 하청, 협력기업들이 들어가 있으며 최근 정부의 지원사업과 R&D투자를 어려워하던 기업들도 속속 미래성장 동력의 테두리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대표산업의 현황〉

산업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생산액(조원)		수출액(억불)		부가가치(조원)	
	2014	2018	2014	2018	2014	2018	2014	2018	2014	2018
	연평균성장률(%)		연평균성장률(%)		연평균성장률(%)		연평균성장률(%)		연평균성장률(%)	
지능형 가전	173	183	7,717	6,976	4.2	4.0	35.1	25.0	1.0	0.8
	1.4		-2.5		-1.4		-8.1		-3.5	
광융합	363	353	7,876	8,073	1.5	2.1	2.2	2.8	0.6	0.8
	-0.7		0.6		8.8		6.2		5.7	
스마트 금형	1,728	1,933	15,673	17,559	4.6	4.7	1.8	1.9	1.5	1.3
	2.8		2.9		0.3		1.4		-3.2	
디지털 생체의료	189	230	1,191	1,678	417	898	4	15	290	631
	5.0		8.9		8.9		39.2		21.5	
전기 자율차	324	370	15,636	15,911	13.7	15.2	65.6	54.0	4.2	4.2
	3.4		0.4		0.4		-4.7		0.1	
에너지 신산업	490	740	5,123	6,378	1.9	1.9	5.9	6.0	0.6	0.6
	10.9		5.6		5.6		0.4		1.4	

주 1) 대표산업, 핵심·연관코드(KSIC) 기준

2) 사업체수, 종사자수 : 전국사업체조사(2014~2018), 1인 이상

3) 제조업 생산액, 부가가치액 : 광업제조업조사(2014~2018), 경제총조사(2015), 10인 이상

4) 서비스업 매출액 : 서비스업조사(2014~2018), 경제총조사(2015), 1인 이상

5) 수출액 : 관세청 품목별(HS10자리)별 마이크로데이터 가공 산출

2020년 올해는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19로 산업의 혁명적 변환의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코로나 19는 전 세계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고 새로운 경제 환경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비대면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를 위한 인공지능, 친환경 저탄소 성장 등 미래 산업으로 생각되던 기술들이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다행히 광주도 이러한 미래전략산업분야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AI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대표산업들을 중심으로 향후 광주에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예측하여 미래의 먹거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검증하고 제안해보고자 한다.

■ 산업별 대응전략

[지능형 가전] 광주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해외이전으로 한때 자구책 마련에 급급했던 지역 가전기업들이 이제는 속속 자기 브랜드 육성, 틈새시장 진출, 지능형·스마트형 가전의 확대에 힘입어 점차 제 모습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특히 한국전자기술연구원(구 전자부품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공기산업 육성지원책이 점차 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로 보여진다.

특히 코로나 19, 소규모 가구 증가, 미세먼지 대응 가전 등 여러 가지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소비트렌드의 변화가 생겨나고 있어 가전 분야에서의 성장세가 예측되어 진다. 다만 기존 대기업 가전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지역 기업들이 생존해 갈 수 있는 전략은 기술적으로는 IoT, AI, 빅데이터, 5G 등 기술융합을 통한 지능형·스마트형 가전을 확보하고 사업적으로는 해외 진출, 판급 조달 등록, 오프라인 홍보 강화 등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와 기회는 함께 온다고 코로나 사태가 지역 가전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기술의 변화, 트렌드의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며 성과로 열매맺음이 중요한 시기임이 분명해 보인다.

[광융합] 지역의 광융합분야 기업들은 지난 10여년간 신규 사업 아이템에 대한 기술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채 정체기를 겪어왔다. 다만 일부 광통신기업을 중심으로 5G 수요증가에 따른 혜택이 있어왔지만 지역 광융합기업들의 전반적인 흐름이 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광융합은 LED 조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품산업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강력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쉽게 도태되는 부분이 있어왔다.

최근들어 이 같은 흐름속에서도 레이저를 이용한 센서류와 이를 적용한 ICT 기기들, LED 파장별 특성을 이용한 의료/바이오 응용제품 등이 각광을 받으며 광융합 제품의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에서 광산업은 상징성 면에서도 분명 가시적인 특성이 나타나야 한다. LED, LD 광원을 중심으로 한 광부품에서의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 더 많이 나타나고 육성되어야 하며 이는 지역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육성책과 맞물려 고민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를 근간으로 융합제품의 확산에 광기술의 기여가 크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타 주력산업(전기 자율차, 에너지, 가전 등)등과의 기술융합 시너지에 주목해야 한다.

[스마트금형] 광주에서 고민을 해야 하는 산업분야다. 금형산업의 특성상 대기업 하청기업이 많을 수 밖에 없고 흐름도 같이 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기업수, 종사자수가 굉장히 많다. 원청구조를 벗어나 사업하기는 국내 산업구조 여건상 쉽지 않아 그동안 R&D를 외면하고 산업육성의 틈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금형은 제조산업의 뿌리다. 광주에 이러한 제조 산업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행운이 될 수 있다. 지역의 타 산업분야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일반 제조기업과 금형기업의 연결이 매우 중요해질 수 있다고 보이며, 묶음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수요기업의 해외이전 및 전기차 등 패러다임의 변화가 결국 금형산업에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그래서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초정밀금형, 고기능성 금형에 대한 투자, 암묵지적 지식의 디지털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디지털생체의료] 최근 광주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산업분야가 바로 디지털생체의료 분야다. 지역에서 낫설수 있는 산업임에도 치과, 정형외과용 생체접촉 소재, 부품, 콘택트렌즈, 봉합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산업분야이다. 초기 티타늄 합금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에서 점차 산업영역을 확장해가면서 명실상부한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발돋움한 형태이다. 더욱이 지역의 산학병연관 네트워크가 비교적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여서 산업의 성장기회는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제 양적성장을 진행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투자와 마케팅에 있어 좀 더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야 할 때이다. 특히 지원에 있어서는 옥석을 가려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지역의 타 주력기술(광, 스마트가전, AI 등)과의 융합이 가능한 생체의료기기, 생체의료서비스와 같은 관련기업들의 육성도 필요하다. 명실상부한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성장을 위해서는 스타기업의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시급해 보인다.

[전기자율차, 에너지신산업, AI] 전기자율차, 에너지신산업은 광주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특히 전기자율차는 자생적 산업육성이 가능한지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물론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이고 규모의 경제도 필요한 분야다. AI 분야는 어디가 AI 기업이고 누가 전문가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도전해 볼 만한 분야라고도 감히 얘기할 수 있다.

분명히 미래산업의 핵심 분야이다. 늦춰지지 않게 따라가야 하며 선두가 없기에 투자해야 한다. 다만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는다. 광주의 산업전반에 걸친 여력을 제고해서 고민하고 투자해야 할 분야를 재차 고민해야 한다.

■ 제언

앞서 주력산업 4개분야는 이제 광주의 탄탄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아직 강한 체력이 뒷받침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키워야 한다. 저변에 깔린 산업토양이 튼실해야 그 위에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키운 전기자율차,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ICT 그린시티 육성, AI산업단지 조성 등도 가능하다. 정부지원금만 내세워 육성되는 산업은 신기루와 같다. 지원금이 없어지면 사라진다. 광주는 이제 대전에 버금가는 연구소들이 들어와 있다. 지원기관들도 꽤 구색을 갖추었다. 게다가 양질의 GIST, 전남대 등 유수의 학교들도 버티고 있다.

필자는 지원기관 지원사업을 10여년간 광주에서 진행해 오며 느끼는 점은 광주의 창업지원생태계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사실 창업지원은 어려운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이유는 단 하나다. 성과가 안 나온다였다. R&D는 100개 지원해서 2~3개만 대박이 나면 좋다고 지원하는데 창업은 이상하게 그런식의 논리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앞서 말한대로 광주는 산, 학, 연, 관의 체계는 지난 20여년간의 지역산업육성을 통해 잘 시스템화 되어 있다고 본다. 알아서 창업하고 좀 되면 그 때 지원하면 된다는 사고는 산업의 성장을 매우 더디게 하는 방식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하지 않나 싶다. 광주에서의 창업은 실패를 디딤돌 삼아 성공할 수 있는 방정식을 만들어 준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산업발전에 있어 광주형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혁신제품들이 많이 나와줘야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광주는 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한 예술, 문화, 디자인 등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한 곳이며 이를 산업화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육성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하며, 실패에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플랫폼이 조성되어야 한다. 광주형 산업발전은 그러한 도전하는 창업가 정신을 받아들이는 무한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었으면 한다.

06

‘경제민주화’로서 광주형

윤영선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이사장
(경제학 박사수료)

키워드: 광주형, 광주형일자리, 경제 민주화, 사회국가

6. '경제민주화'로서 광주형

광주형은 공동체, 민주화로 상징되는 광주 정신을 의미한다. 광주 정신으로서 광주형은 '광주형 일자리' 그리고 '경제 민주화'에서 가장 드러난다. 미시적 관점인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 공동체 차원의 사회적 합의제도를, 거시적 관점인 경제 민주화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대안으로서 자유시장경제에 사회국가 원리가 반영된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광주형은 이 두 가지 개념이 추구하는 것으로 '지역 차원의 경제 공동체', '사회국가 원리'로 볼 수 있다.

광주형의 정의는 '광주'가 갖는 정신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신이라는 것은 집단이 갖는 정체성으로 오랫동안 동일한 사건이나 경험 속에서 생성된 고유하고 근본적인 사상이다. 우리지역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역사적 사건은 아마도 '5·18민주화 운동'일 것이다. 당시에 지역민들은 독재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광주 공동체를 지켜냈다. 이후 민주화와 공동체는 광주 정신의 상징이 되었다.

경제적 관점에서 광주 정신에 부합하는 한국사회의 이슈 논쟁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광주형 일자리'와 '경제 민주화'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광주형 일자리'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광주형에 대한 최초의 경제적 모델이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크게 주주 중심과 이해관계자 모델로 구분된다. 주주 중심주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이 기업의 권리를 갖는 반면, 이해관계자 모델은 기업을 둘러싼 기업가, 노동자, 시민, 금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권리를 나누어 갖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합의라는 용어가 말해주듯이 소유지배구조의 변화를 통해 이해관계자 모델을 추구하는 정책이며, 지역 차원의 사회적 합의에 해당한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사회적 합의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인 경제 민주화는 거시적 관점에서 신자유주의의 대안적 경제질서를 의미한다.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와 재벌 중심의 산업발전 논리로 대량 실업, 고용불안,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 등 불평등 분배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경제사회 문제의 대안으로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가 제시되었다. 경제 민주화는 국민이 갖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자유시장 원리와 사회국가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광주형은 광주의 시민정신인 민주화와 공동체를 의미한다. 광주 정신이 어떠한 점에서 기존 경제질서의 대안이 되는지는 광주형 일자리와 경제 민주화가 주장하는 구체적 내용을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

■ 미시적 관점에서의 광주형: 지역 차원의 사회적 합의제도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은 초기 자본주의사회와 달리 집단행동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한다. 이러한 변화는 법률 토대와 경제 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거대 기업의 자본규모가 커지면서 개인이나 특정 소수가 기업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자 투자자와 기업가의 지위도 급격하게 변했다. 기업가는 이사회를 통해 기업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게 되었고, 개인 주주들은 기업의 소유자가 아니라 단순 투자자로 전락하여 자본시장에서 법률적 통제를 받게 되었다. 또한 노동자들은 동일 공간에서 협업하다 보니 동질의식이 형성되어 노동조합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선거권과 정당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본주의사회가 발전한 오늘날 기업의 이해관계는 노동조합, 기업가 그리고 정부 간의 집단행동으로 나타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집단행동이 법률적, 정치적 행위로 나타나면서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법률적 중재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고, 이 삼자의 사회적 합의제도로서 각종 사안에 따른 경제 관련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행정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 법적 구속력을 갖는 위원회,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로 구분된다.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외부에 합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위원회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할 수 있으며,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는 법적 구속력 없는 자문기관에 불과하다.

기업을 둘러싼 집단행동의 합의기구 중 대표적인 형태로는 기업가와 노동자의 갈등 해결을 위한 노동위원회, 자본시장에서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개인 주주들과 기업의 지배적 소유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금융위원회, 기업 간 또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활동에 따른 세액 조정을 위한 조세위원회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의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관이고, 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한 고용노동부 산하의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위원회이며, 조세위원회는 자문성격의 위원회로 구분된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사회적 합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광주형일자의 4대 의제인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개선은 사회적 합의로서만 가능한 것으로 기업 내에서 결정되거나 해결될 수 없다. 적정임금 수준, 적정노동시간에서 ‘적정’이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로만 결정되는 것이고, 원·하청관계제도 제3자의 중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이 특정 기업이나 주체가 아니라 지역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는 지역 차원의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결국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설립단계부터 성과 공유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지역 차원의 사회적 합의 제도가 전

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광주형은 지역 공동체 차원의 사회적 합의로 보아야 하며, 실질적인 효력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계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다. 지자체의 위원회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행정위원회와 동일하게 합의제행정기관과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전자는 지자체의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후자는 지자체 사무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받는 기구다. 지자체 합의제행정기구(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제1항에 근거하여 법령 또는 지자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지자체 합의제행정기관은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거나,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게 성문화 되어 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 차원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따라서 기업의 이해관계자 간 합의기구도 동일하게 지자체 차원에서 설치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광주형일자리 정책으로 만들어진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설립 취지가 기존 기업집단과 다르기 때문에 4대 의제에 대한 논의기구가 별도로 필요한 것이다.

[표] 중앙 행정위원회와 광주형일자리 합의제행정기관(가칭) 비교

중앙 행정기관	행정기관 성격	광주형일자리 합의제행정기관(가)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
노동위원회	법률 구속력 기관	노동실무위원회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금융위원회	합의제행정기관	사회복지 실무위원회	노사책임경영, 주택·의료 등 복지 협의
공정거래위원회	합의제행정기관	지역상생실무위원회	원·하청 기업 관계
조세위원회	자문기관	좌동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성격을 갖는 ‘광주형 일자리 합의제행정기관(가)’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합의제행정기관 산하에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등 노동환경에 대한 갈등을 조정하는 ‘노동실무위원회’, 노사책임경영과 광주시가 공급하기로 한 주택·의료·교육 등 사회 복지 서비스의 규모를 결정하는 사회복지실무위원회 및 원·하청 기업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지역상생실무위원회를 둔다. 독립제 행정기관은 상시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반면, 합의제 행정기관은 사안이 발생할 때만 운영되는 비상시적 기구다. 광주형 일자리는 매년 ‘적정’수준에 대한 합의 그리고 복지지원 규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합의제행정기관은 정기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합의제행정기관은 정부의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독립제 기관하고 상충되지 않는다. 지자체의 기관 중 독립성을 갖는 합의제행정기관은 지역 실정에 맞게 어떠한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중앙 행정기관하고 다른 기능과 효율성 갖는 기관이다. 오히려 지자체

의 합의제행정기구는 해당 사안이 중앙 기관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로 검토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중앙 기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관이 필요한 이유는 시민들이 선택적 또는 추가적으로 이용하게 하여 법의 보호를 두텁게 받게 하는 데 있다(대법원 1997.4.11.선고96추138판결). 그러므로 지자체의 합의제행정기구의 설립은 지역 차원의 사회적 합의제도로써 시민의 권리와 기업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기업과 달리 지역 차원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립되었다. 이는 기존의 행정체계로는 광주형 일자리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 행정기관은 전국의 모든 기업에게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잣대를 제시해야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에 관련된 행정기관은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에 부합하는 사회적 척도를 제시해야 한다.

■ 거시적 관점에서의 광주형: 신자유주의의 대안 및 사회국가로서 경제 민주화

세계 2차대전 이후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이론적 토대는 유효수요 정책으로 일컫는 케인스주의였다. 케인스는 유효수요 수준에 따라 고용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은 공급이 수요를 결정한다는 세이(Say)의 이론을 부정한 것으로 당시에는 혁명적인 생각이었다. 세이의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저축액과 투자액이 일치해야 하며, 완전고용이 달성되어야 한다. 케인스는 저축이 투자를 초과하여 유효수요가 부족할 경우 불완전고용이 불가피하고, 이자율 조정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과 소득이 감소하여 저축과 투자의 갭(gap)이 해결된다고 보았다. 기업은 미래의 장밋빛 전망을 보고 투자한다. 투자는 이자의 함수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함수다. 만약 기업이 미래의 경제전망을 낙관할 수 없다면, 투자는 위축되고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없다. 케인스의 정책적 목표는 그의 저서 「일반이론」 중 ‘사회철학’에서 엿볼 수 있는데, 그는 완전고용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투자의 사회화’를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실업의 원인은 사회적 투자가 완전고용 수준에 비하여 부족하고 부의 분배가 자의적이고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은 크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중앙은행을 통한 통화량 조정이고, 후자는 정부의 지출과 조세제도를 의미한다. 그는 정부의 거시경제정책만으로 완전고용 수준의 유효수요를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생산의 총잠재능력 수준의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투자의 사회화를 주장한다.

신고전학파(공급주의, 통화주의, 합리적기대가설)는 1970년대 석유파동을 지나면서 유효수요 이론인 케인스주의가 물려난 자리에 소위 신자유주의로 불리면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열게 된다. 케인스주의는 수요 정책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반면에 신자유주의 질서는 수요보다는 공급주의, 정부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변화로 시민들은 실업과 부의 불균형 등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 민주화에 대한 개념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를 살펴보고 그 대안을 생각해보면 분명해 질 것

이다.

신고전학파는 공급주의, 통화주의, 합리적기대가설을 통칭하는 경제 사조다. 먼저, 공급주의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급자인 기업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정책 기조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각종 규제 철폐, 법인세 감면, 노동 유연화 등 친기업적 정책을 시행한다. 다음으로 통화주의는 정부의 개입이 총수요를 증대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물가 인상의 요인이 된다고 보고 균형재정과 준칙주의(K% rule) 통화정책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합리적기대가설에 의하면, 대중은 경기변동에 따른 정부의 정책 변화를 합리적으로 기대하고 그에 맞게 사전에 행동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총생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물가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는 유효수요를 주장했던 케인스의 거시경제정책과 그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경제사회 문제는 신자유주의 기조에 따른 정부의 친기업 및 자유시장 정책으로 발생한 노동 불안과 부의 불균형이 핵심이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로 무너진 노동 시장과 분배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 민주화는 헌법 제119조2항-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로서 자유시장경제에 사회국가 원리가 반영된 것이다. 사회국가는 시장경제의 모순을 사회적 정의에 입각하여 사회개량을 통해 해결하려는 국가 운영원리다. 사회국가로서 경제 민주화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로 무너진 고용 안정과 부의 분배에 대한 사회적 정의가 담겨져 있으며, 소득의 공평한 분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고용 안정, 안전 또는 환경 같은 외부 불경제에 대한 규제 등 신자유주의로 발생한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적 성격을 갖고 있다.

광주형은 광주의 정체성인 민주화를 상징하는데, 경제에서는 자유시장질서에 사회국가 원리가 수용된 경제 민주화를 의미한다. 경제 민주화는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오늘날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양극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 VS 사회국가로서 경제 민주화의 경제 원리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경제 민주화
• 친기업 정책 - 법인세율 인하 - 환경 및 안전 등 각종 규제 완화 -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 균형제정 - 복지 축소	• 친노동 정책 - 노동소득분배율 상승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 노동자의 경영참여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공정거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근절: 내부거래 - 기업 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이사제 개편 - 경제 주체간 상생: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 원·하청 관계 개선 • 재정확대 및 통화정책 개선 - 복지 확대, 정부투자 일자리 창출 - 고용과 연계한 통화정책 수립

광주형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광주가 가장 먼저 제안했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기존의 경제질서는 표준화, 세계화, 서울 중심주의 등으로 전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고 지역의 부를 소위 ‘중앙’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집중하고 있으며, 친기업 정책, 노동 유연화, 불평등한 노동소득 분배 등 경제사회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사회는 전국보다 지역 차원의 경제를, 평등한 분배를 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요구되었고, 이러한 요구에 광주의 공동체, 민주화 정신이 그 이정표로 작용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광주형은 새로운 경제질서를 의미하고, 그 철학적 가치는 인간 중심적 공동체 정신과 지역의 여러 주체들이 상생하는 경제 민주화가 되어야 한다.

07

광주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단상



이철승
더함 전문위원
(경제학 박사)

7. 광주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단상

■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책임

개인이 자신을 포함한 세계와 특정대상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 또는 견해, 입장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한다. 기업가정신은 바로 기업가가 가지고 있거나 갖추어야 할 가치관과 태도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전통적 의미의 기업가정신은 미래에 대한 통찰과 혁신적·창의적인 개념으로 설명되어 왔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슈페터가 ‘기술혁신을 통한 창조적 파괴’의 관점에서 정의한 기업가의 역할과 기업가 정신이 그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경영학의 구루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저서를 통해 ‘기업가’를 “변화를 탐구하고, 변화에 대응하며,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자”라고 정의하며, 기업가정신의 본질은 ‘실천’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업가정신은 사회 각 분야에서도 필수적인 것으로, 기업가정신의 확산은 ‘복지국가’의 다음사회 ‘기업가사회’로의 전환을 추동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기업가정신은 다분히 철학적이어서 어떤 접근과 해설이 반드시 옳다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통상 기업의 본질에 따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혁신’ 등의 실천적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술혁신’, ‘절차의 효율화’, ‘생산성 향상’ 등의 용어들이 혁신적인 기업가에게 필요한 핵심요소로 인식되는 까닭일 것이다.

최근 기업과 기업가정신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핵심가치가 있는데,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다. 이는 중등교과과정에 반영될 정도로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영활동과 관련된 직·간접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법적, 경제적, 윤리적 책임을 감당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통상 정의하는데, 보편적으로 ‘봉사’나 ‘공헌’과 같은 자선(慈善)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 역시 브랜드이미지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의 도구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경영전략의 일환으로써 선별적이고 선택적 사항이라는 의견, 즉 자율주의적 견해가 가지는 한계와 대안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주요 국가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확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국제기준과 개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는 2019년부터 ‘CSR의무화법’을 통해 3년 회계연도 평균 순이익의 2%이상을 CSR활동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역시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CSR Action Plan’을 수

립하였으며, 덴마크는 2012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계획’을 통해 재무제표에 CSR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책임에 대한 제도의 확립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필요성과 범위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섹터의 노력이나 ‘강제성(제도화)’의 논쟁과는 별개로, 주요 기업들 역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필수적인 사항으로 보고 있다. 윤리적 선택 사항이 아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투자 행위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SR의 일방적 재분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이윤창출 활동과 사회·환경적 가치를 통합하여 경제적, 사회적 가치의 총량을 함께 확대하는 개념인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에 대한 관심과 시도가 확산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기업가정신, 창업기업가정신의 설명을 위한 기본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 가치에의 투자는 기업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행위이며, 이를 위해 기업가 주도의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기업가 정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하나의 범주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 광주와 기업가정신?

‘광주형’이라는 단어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광주시민이 구현한 가치와 역량, 이를 통한 자부심을 현재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일 것이다. 아마 대부분의 광주시민은 ‘공동체의식’, ‘민주적 가치’, ‘정의’ 등의 가치를 광주정신의 근간으로 인식할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먼저 고민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하나는 기업 활동은 경제적 가치창출을 위해 법적, 윤리적, 사회적 가치에 다소 소홀하더라도 용인해온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다. 그리고 ‘광주형 기업가치’를 도출하더라도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제도를 통한 일정 수준의 강제가 필요할 수 있지만, 오히려 위축된 광주경제 상황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시점과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광주의 기업·경제 상황에 적합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기업환경은 말 그대로 “매우 복잡”하여, 특정 용어나 단일한 상황으로 정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적 가치 증대를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업가정신의 확산’을 통해 기업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사회문화적 문제 해결 과정에 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경제공동체의 구현이 ‘광주’와 ‘기업’이라는 다소 이질적으로 보이는 두 단어의 접점을 찾기 위해 끼워야할 첫 단추일 것이다.

■ 미래가치 증대를 위한 방향 검토

1) 경제적 가치 증대를 위한 투자 : 연구개발 활동의 질적 가치 회복

광주의 지역내 총생산(GRDP)은 최근 통계기준 약 35조원으로 전국 대비 약 2%의 규모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내 28.1%의 부가가치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높은 생산액 성장수준이 지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제조기업은 8,983개사로 다소 적은 편이나 종사자는 8.6만명으로 전국 평균 수준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공장등록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5%로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광주는 제조업체중 종사자 10인 미만의 기업의 비중이 92.6% (300인 이상 기업은 93개사로 0.1%) 수준이며, 매출규모도 50억 미만의 기업이 전체의 97.1%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동차, 가전산업과 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역내 생산품의 역내 조달율이 낮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¹⁾

결국 광주의 경제적 가치 증대를 위해서는 서비스업 기반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핵심산업군의 신성장 동력이 될 기술력의 확보가 절실한 것이다. 기업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최우선 과제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투자와 함께 질적 가치의 증대를 위한 기업가 주도의 관리 노력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직접투자를 통해 기술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경영 여건 등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이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소수의 기업은 기술 확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 그 반대의 경우로 접근하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물론 재원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는 어떤 방식으로건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재원의 규모와 활용방법은 연구개발 목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기업가는 연구 성과를 얻기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투자 및 관리 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혁신은 기업본연의 역할이자 전통적 기업가정신의 핵심영역이다. 다소 진부한 내용일 수 있는 연구개발 활동을 미래가치 증대의 관점에서 언급하는 것은 그간 관습적으로 이루어진 부정적 방법 또는 비효율적 접근은 지양하고, 그 목표와 절차 등의 핵심내용에서 광주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의미의 재정립(질적 가치의 회복)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것이며, 이는 기업가들의 의지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1) 광주광역시, '2021년도 지역혁신성장계획'(2020. 4)

2) 사회적 가치 투자를 통한 기회 선점 : 그린뉴딜의 선도

‘2050탄소중립’, ‘AI그린뉴딜’ 등과 같이 정부와 공공영역에서는 기후문제와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여러 비전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여러 기업에서 우리와는 관계 없는 문제이다거나 새로운 규제에 대한 우려, 아니면 단순한 정치적 이슈메이킹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접하게 된다.

하지만 단언컨대 기후대응과 이를 위한 그린뉴딜 정책은 선택적 사항이 아니다. 이미 산업구조와 플랫폼의 전환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며, 우리 광주 역시 3대 전략 8대 과제를 통해 혁신 방향을 수립한 바 있다. 정책적 논의와는 별개로 주요기업들 역시 미래 핵심전략으로 ESG경영(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외 주요 기업들은 RE100 참여를 공표하고, 협력관계의 기업에게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한국형 RE100 제도의 법적 근거 역시 마련된 상황이다.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자되기도 하지만, 공공이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은 기존 운영방식의 변화를 초래하는 다소 불편한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며 신규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주 기업들은 RE100 산단 조성 등의 세부적 뉴딜계획을 숙지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여야 한다.

3) 상생 가치에의 투자를 통한 기회 창출 :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 제안

통상 ‘기업간 상생’은 ‘대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간 관계’의 방향성을 정의하는 의미로 활용되지만, 다소 다른 관점에서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 가치에 투자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안하고 싶다.

최근의 조사²⁾에서는 광주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약 1,194개로 파악하고 있다. 제조업(20.6%)과 도소매(20.8%)업종의 비율이 높고, 설문에 응답한 65%의 기업이 일자리제공을 설립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사내용 중 몇 가지 응답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강점으로 꼽은 분야는 품질과 가격이며, 약점과 어려움으로 꼽은 항목은 자본력과 마케팅이라는 점과 연구개발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총 353개 응답기업중 32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설립목적이 사회적 가치 구현에 있다는 점, 즉 발생한 이윤의 분배 원칙에 차이가 있다는 점 외에는 보편적 기업 활동 방식과 대동소이하게 운영된다. 원재료 구매 등 사회

2)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0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실태조사 및 분석’(2020. 12)

적경제기업의 거래대상으로 일반기업이 가장 많다는 설문 응답을 보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기업이 가지는 강점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지만, 품질과 가격을 자신하고 있다. 다소 단편적이긴 하지만, 충분히 거래관계의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최근 우리 광주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신발 인솔 등 사회적기업 생산 제품에 지역의 센서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제품군을 개발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여 호평을 받은바 있다.

광주의 기업들이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가치에 직·간접 투자하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동반성장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광주형 경제공동체의 기반

기업의 활동은 매우 보편적이면서도 복잡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윤 창출을 위한 고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광주형’이 갖는 상징적 의미와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의 환경변화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에 소홀할 경우 그 지속가능성을 보장받지 못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 광주의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들을 감안하면 너무 가혹하다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가들의 혁신과 도전이 가장 빛을 발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경제적 가치 창출과 사회적 가치에의 투자활동이 별개의 영역이 아님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기업가정신의 확산이야말로 광주형 경제공동체의 단단한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광주 기업의 건승을 응원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광주형' 포럼 행사 사진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우리가 생각하는 '광주형」 포럼

광주의 집단 지성 '광주형'을 말하다

참여방법 ▶ YouTube 검색 "우리가 생각하는 광주형 포럼"

포럼일자 2021년 1월 27일(수) 오전 10시 ~ 오후 4시 30분

개최장소 전남대학교 김남주 홀

주 최 전남대학교 LINC+사업단, 전남대학교대학원혁신본부

주 관 더함, 더함 경제문화연구소

참여기관 (사)광주형일자리연구원,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사회자 1** 정대근 (더함 경제문화연구소장, 광주대학교수)
사회자 2 김경래 (더함 경제문화연구소 전문위원,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진행	시간	프로그램	비고
사회자 (정대근)	10:00	개회식	인사말, 축하사내빈 소개 송갑석 국회의원 축하 윤영덕 국회의원 축하
	10:10 ~ 12:00	종합 세션	좌장 박병규(광주형일자리연구원 이사장) 발표자 윤영선(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이사장) 이철승(광주지역사업평가단장) 박미정(광주시의회 의원) 토론자 김현영(광주시 시민사회협력관) 윤희철(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고준(전남대학교 교수)
	12:00 ~ 13:00	점심	
	13:00 ~ 15:00	부분 세션 1 인권, 여성	좌장 김란희((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상임이사) 임남수(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책임연구원) 김란희((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상임이사) 토론자 김경래(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권은비(전남대 생활복지학과 강사) 박용구(오늘경제 광주전남본부장)
	13:00 ~ 15:00	부분 세션 2 교육, 문화, 예술	좌장 김중현((사)광주광역시평생교육사업회 사무처장) 발표자 장용석(신시외커뮤니티 협동조합 이사장) 박경동(광주문화재단 팀장) 장성권(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작자 전문위원) 토론자 백정일(논술학원장) 이숙영(주)좋은 친구들 기획이사)
	13:00 ~ 15:00	부분 세션 3 도시재생 및 산업	좌장 선봉규(전남대 글로벌다이스포라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발표자 안수정(한국관광기술원 기업성장기획실장) 전창진(광주송정역세권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김수환(광주남구도시재생지원센터장) 토론자 서승호(재정·예산·입법지원센터 광주센터 총괄매니저) 오창민(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이사)
사회자 (김경래)	15:00 ~ 16:30	토론회	윤영덕 국회의원 박병규(광주형일자리연구원 이사장) 정대근(더함 경제문화연구소장, 광주대 교수) 하정호(광주광역시 광산구 교육협력관) 최희열(세우사) 최유진(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 사무국장)

INVITATION

「우리가 생각하는 '광주형」 포럼

광주의 집단 지성 '광주형'을 말하다

'광주형' 포럼에 초대합니다

참여방법 ▶ YouTube 검색 "우리가 생각하는 광주형 포럼"

포럼일자 2021년 1월 27일(수) 오전 10시 ~ 오후 4시 30분

개최장소 전남대학교 김남주 홀

주 최 전남대학교 LINC+사업단, 전남대학교대학원혁신본부

주 관 더함, 더함 경제문화연구소

참여기관 (사)광주형일자리연구원,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더함 포커스 Vol.3 No1은 전남대학교링크+사업단과 전남대학교대학원혁신본부가 주최하고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과 더함 경제문화연구소가 주관한 '우리가 생각하는 광주형' 포럼에서 발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포커스 전문위원 |

정대근	문화정보학 박사, 더함 경제문화연구소 소장, 광주대학교 문화정보학과 교수
권은비	생활과학 박사,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강사, 사회복지법인 권동식아벤티노재단 사무국장
김경례	사회학 박사,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전문위원
김란희	여성학석사,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상임이사
김수환	도시계획 박사, 광주남구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영미	호텔관광경영학 박사, 동신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김종완	평생교육학 석사, (사)광주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 사무처장
김태호	행정학 박사수료, 국제기후환경센터 전략기획실장
김허경	미술학 박사, 전남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광주미술문화연구소 연구원
김 현	철학 박사,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학술연구교수
박경동	사회학 박사수료,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교류팀장
박철희	경제학 박사,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BK사업팀 학술연구교수
서승호	사회복지학 학사,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 총괄매니저
서현희	지구환경과학 박사,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전문위원
선봉규	정치학 박사,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책임연구원
안수창	공학 박사, 한국광기술원 기업성장기획실장
오창민	사회학 박사수료,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이사
윤영선	경제학 박사수료,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이사장/대표
윤희철	도시지역개발학 박사,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이숙영	호텔관광경영학 박사, ㈜좋은친구들 기획이사
이철승	경영학 박사, 광주지역사업평가단 단장
임남수	법학 박사,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책임연구원
전창진	도시지역개발학 부동산학 박사, 광주송정역세권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센터장
정은주	도시지역개발학 박사, 조선대학교 문화학과 초빙객원교수
주문희	교육학박사, 광주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최지혜	경제학 박사,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연구교수
최혜원	전기공학 박사, (재)녹색에너지연구원 풍력해양연구실 선임연구원
홍성운	행정학 박사, 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교수
황철호	공학박사, 국제기후환경센터 탄소중립도시연구지원단장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포커스

2021.03. Vol.3 No.1

The Community of Economics and Culture
DEOHAM FOCUS

발행처 더함 경제문화연구소(북더함)

발행일 2021.03.16

발행인 윤영선

편집인 정대근, 김정훈

디자인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101-6

전화 062.431.6339 FAX 062.262.6340

<http://www.eccplus.co.kr>

ISSN 2672-2013